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5편

Jeff Pippenger

2025-12-21

숫자 15

나는 요엘서 1장 첫 네 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네 세대'라는 상징과 '늦은 비' 메시지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엘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첫 연은 언약이 네 세대와 맺는 예언적 연관성이다.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자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네 자손을 사백 년 동안 학대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사대가 지나면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13-16.

이 본문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 성취된 예언이다. 요엘서가 점차 격화되는 파괴의 네 세대를 언급하며 포도원의 노래를 시작할 때, 그것은 요엘서를 예언적인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대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베드로가 말한 '택하신 세대'이다. 그들은 '독사의 세대'로 표현되는 그들의 세대적 상대와 대조된다. 그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는 요한으로 대표되며, 그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십사만 사천의 상징이다.

레위인들이 아론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반역 때 신실했던 것처럼, 9/11에 부르심을 받고 한밤중 외침에서 택함을 받아 일요일법 위기에서 신실하다. 말라기 3장에서 은같이 정련되는 영혼들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 동안 택함을 받는 레위인들인데, 인침은 성령의 부여주심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화잇 자매가 성경 예언의 알파로 지목하는 모세의 역사에서, 성경 예언의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와 예언적으로 연결되는 몇 가지 맥락을 살펴보았다. 모세는 기초석이고 그리스도는 완성석이다. 그 둘은 모세 시대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으로 대표되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상징이다. 그러나 모세의 손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나타남은,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셨을 때 훨씬 능가되었다. 모세는 알파요 그리스도는 오메가이며, 오메가는 숫자 '22'이고 알파는 숫자 '1'이다.

모세를 살펴보면, 그의 예언적 증언을 관통하는 구원이 물이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태어날 때 나일강의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방주 속 노아를 예표했다. 홍해에서의 세례는 방주 안의 노아와 여덟 사람과 상응하며, 이는 다시 요단강에서의 여호수아의 세례와 상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를 반복하셨다. 모세의 증언은 나일강에서의 구원으로 시작하여 요단강가에서 끝난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 증언하게 하는 기름부음이었으며, 그 죽음은 처음, 곧

그의 세례에서 예표되었다. 그의 부활 때에는 몇 방울만 있었고,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쏟아졌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 성취되었다. 알파로서의 모세는 오셔서 선택된 백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실 오메가이신 예수를 예표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표징인 무지개가 주어진 노아의 언약과 맞닿아 있다. 모세는 또한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표징이 할레인 언약과도 연결된다. 모세의 언약 사역은 단지 선택된 백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혼합 무리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난 온갖 '구원의 물'들 한가운데, 요단강 베다바라에서의 세례는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을 이룬 그 역사 말기를 연결한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고대 이스라엘의 세례와 상응하며, 두 역사 모두 그분의 부활을 증언한다. 곧 오십 일 뒤 오순절의 풍성한 소나기에 앞서 그분이 몇 방울의 비를 숨결로 내쉬신 그때를 가리킨다.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알파와 오메가의 전체 흐름이 구원의 물 속에 그려져 있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증언하는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보여 주셨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이들이 구약성경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며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분은 구약성경을 매우 높이 여기셔서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31.

"아담의 시대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 이르기까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구주께서는 신약에서만이나 구약에서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의 가르침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내 주는 것은 과거의 예언에서 비추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지만, 그분이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보여 주는 더 강력한 증거는 구약의 예언들과 신약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발견된다." 시대의 소망, 799.

요엘서를 다루는 글들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해 왔고, 또한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비교해 왔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는 1798년에 시작된 세 천사의 역사이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제시된다. 성경과 예언의 영의 기록된 증언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며, 그리스도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마지막 때에 그분의 메시지는 늦은 비의 메시지이며, 요엘에 따르면 그것은 이른 비를 포함하고, 그 뒤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따른다.

계시자 요한은 자기 뒤에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옛 길로 돌아가는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뒤에서 나는 그 "음성"은 "아담의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내게 말하던 그 음성을 보려고 내가 돌아섰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
요한계시록 1:12.

그 구절은 1장에서 단절을 나타낸다. 직전 구절까지 요한은 밧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지만, 12절에서 그는 돌아서고 그때부터 요한은 하늘 성소에 있다. 그가 돌아선 것은 10절에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르디스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요한계시록 1:10, 11.

요한은 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들을 대표한다. 그는 옛 길로 돌아가라는 예레미야의 나팔 메시지, 곧 악인들이 걷기를 거부한 길과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경고의 나팔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다. 요한은 귀를 기울였고,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곧 옛 길과 함께 새 길을 보여 주시는 분이라고 밝히셨다.

일곱 촛대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눈처럼 희었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달군 듯 빛나는 놋과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왔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그 힘으로 비추는 것 같았다. 요한계시록 1:13-16.

12절에서 요한은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데, 화이트 자매는 이를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환상과 일치한다고 보며, 같은 환상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도 보았다.

나는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 당시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되풀이될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때에는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기를 진실로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아담과 에스겔의 뼈들의 골짜기], 또 제단에서 취한 타는 숯으로 입술을 만지셔서 [이사야], 그분을 찬양하는 데 능변하게 하실 수 있다. 수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더듬는 혀가 풀리고 [이사야의 다른 혀], 소심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 담대히 증언할 만큼 강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도록 [말라기의 레위인들], 그리고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과 그토록 긴밀한 연합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Review and Herald, 1886년 7월 20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상에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요한이 돌아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인류 또는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물소리와 연관된다. 다니엘 7장부터 9장의 메시지는 1798년에 봉인이 풀렸고, 이어 1989년에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의 메시지가 봉인이 풀렸다. 1798년은 올라이 강의 소리와 연관되며, 1989년은 히데겔 강의 소리로 나타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가 스날의 큰 강들인 올라 강가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증언, 112.

요단강은 고대 이스라엘의 알파 언약 역사와 오메가 언약 역사를 잇는 연결고리다. '요단'이라는 말은 '하강자'를 뜻하며, 그리스도, 곧 '위대한 하강자'를 상징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5-9.

요단강은 그리스도, '위대한 강림자'를 상징하며,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맡겨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잇는 연결 고리이다. 모세의 구원의 물은, 영혼이 돌이켜 '그들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려 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상징하며, 그때 그들이 듣게 될 음성은—많은 물의 음성이다. 노아의 홍수로부터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물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이정표로 제시되어 왔다. 그 이정표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백성, 십사만 사천의 내적 역사를 상징한다. 요단강에 공급되는 물은 헤르몬 산들에 축적되는 이슬과 눈에서 기원하며, 그 산들은 요단강의 발원수를 이룬다.

다윗의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으니, 그것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같으며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3:1-3.

그 물들은 또한 판의 동굴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11:13-15의 파니움과 베드로 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에 위치한 동굴 속에 자리한 깊은 못이다. 요단강의 발원수 또한 판의 동굴의 사탄의 못을 만들어 낸다. 많은 물소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헤르몬 산의 높은 봉우리들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리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이름 "헤르몬"은 "거룩한, 성별된, 헌신된, 따로 구별된"이라는 뜻이며, 하늘을 상징하고 모든 물의 근원이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판의 동굴에 붙이신 호칭인 "지옥의 문"으로 표현된 대분쟁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자리에서 시몬 바요나는 베드로로 바뀌었다. 시몬은 "듣는 자"를, 바요나는 "비둘기의 아들"을 뜻한다. 시몬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난 성령으로 표상된 예수님의 세례의 메시지를 들은 영혼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의 세례의 메시지를 들은 자는 14만 4천을 대표하는 베드로로 변화된다. 베드로는 파니움에 있을 때 인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해당한다.

헤르몬의 물에서 시작한, 그리스도, 곧 위대한 내려오시는 분의 상징인 요단 강은 사해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생명의 이슬이 비롯되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사해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셨다. 사해의 해안선은 지구 지표에서 드러난 육지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다. 내려가는 요단 강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수면까지 내려가듯,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셨다. 생명의 물에서 죽음의 물에 이르기까지, 요단 강은 하늘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을 상징한다.

성경 예언의 중요한 주제들은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성경 예언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다. 바벨론의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유프라테스의 물은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을 준비하기 위해 마르며, 상인들과 왕들은 멀리서 서서 탄식하니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시스의 배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며,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 거짓 아래 숨으며 받아들인 사망의 언약은 교황권의 일요일 법의 넘치는 홍수에 의해 무효화된다.

화이트 자매가 "시날의 큰 강들"을 언급할 때, 그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킨다. 그 물줄기는 에덴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곳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이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른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창세기 2:14.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물론 유프라테스는 유프라테스 강이지만, 현대의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올라이가 큰 강이 아니라 시날이 아닌 페르시아의 인공 수로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인간 권위자들은 시날과 연관되어 주목할 만한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개뿐이라고 단정하며, 여선지자는 올라이와 히데겔을 "시날의 큰 강들"이라고 말한다.

물의 메시지에 관한 여선지자의 말은 현대의 전문가들을 반대한다. 이는 노아의 물의 메시지에 반대했던 옛 전문가들도 그랬던 것과 같다. 두 강으로 상징된 두 환상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으므로, '시날의 두 큰 강'이 준 그 두 환상 안에 표현된 모든 것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강들과 관련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기 때문이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중대한 예언적 주제를 대표하며, 그들의 증언은 알파 모세가 제시한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오메가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바로 그 언약이다.

예언에서 티그리스 강은 아시리아를,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와 관련해 그들은 예레미야가 사자들로 묘사한 두 세력으로서 먼저 북왕국을, 이어 남왕국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몰아냈다. 먼저 앗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레살이 그의 뼈를 부수었다. 예레미야 50:17.

앗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어느 왕국을 기준으로 보아도 북방의 원수였으며, 그러므로 거짓 '북방의 왕', 곧 교황권의 예표들이다. 동일한 문화적 환경에서 일어난 두 세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정치적·종교적 전통을 이어갔지만,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앗수르는 그 정치 구조가 국가 통치술을 강조한 반면, 바벨론은 교권 통치술을 강조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여전히 이교 로마는 국가 통치술을, 교황 로마는 교권 통치술을 대표한다. 예언적 맥락에서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앗수르는 국가 통치의 왕국이었고, 그 뒤를 이은 바벨론은 유사한 권세였으나 교권 통치를 강조했다. 앗수르는 이교 로마를, 바벨론은 교황 로마를 대표한다. 이 네 세력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와 군대를 짓밟았다. 앗수르는 티그리스 강과,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연관된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프라테스가 마르는 사건과 일치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프라테스의 물길을 돌린 고레스의 행위로 예표된 바와 같이 동방의 왕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요, 앗수르는 티그리스다.

예언에서 북방의 왕은 일요일 법령 위기 동안 세상을 정복하고 그 후에 몰락하지만, 그 정복은 종종 압도적인 홍수로 묘사된다.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북방의 왕의 이야기는 많은 물소리로 전해지기에 강들로 상징된다.

두 강 사이의 땅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며, 이는 '두 강 사이의 땅'을 뜻한다. 그 두 강은 하나님이 배교한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 흩어 벌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북방의 권세를 상징한다. 많은 물소리의 여러 지류 가운데 하나는 '파다나람'이라는 이름에서 발견되는데, 이 이름은 성경에서 단 열 번만 언급된다. 첫 언급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혈통적 뿌리를 밝혀 주기 때문이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삭은 사십 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모세의 세 증거를 통해, 사십 년의 끝이 가데스와 1863년, 그리고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삭의 결혼은 언약의 결혼으로서, 일요일 법령 때(곧 1863년이며 가데스이며 사십 년 언약 역사의 끝) 그리스도와 십사만 사천의 혼인을 예표한다. 리브가는 시리아 사람의 딸이었고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라반은 다음 세대의 언약 역사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브두엘은 '황폐 또는 황폐케 하는 자의 집'을 뜻하므로, 리브가는 '황폐케 하는 자의 집'의 딸이었다. 시리아는 고지와 고원을 뜻하고,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곧 사이에 있는 땅을 뜻한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즉 '앗수르의 티그리스'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사이의 고지에서 온 시리아인의 혈통이었다. 이 두 강은 주께서 배교한 양떼를 흩으시는데 사용하신 사자들을 상징한다. 황폐케 하는 자들의 집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집과 연합되었다. 밧단 아람이 처음 언급될 때, 넘쳐 흐르는 홍수로 묘사된 북방의 예언적 왕을 상징하는 이 두 강이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황폐의 집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연관성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계속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다음 언약의 혼인을

확보하기 위해 2520일씩 두 기간 동안 섬겼다. 한 혼인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훌어짐으로 끝났고, 다른 혼인은 남왕국의 훌어짐으로 끝났다. 그 두 왕국의 각각의 훌어짐 기간이 1798년과 1844년에 끝났을 때, 야곱이 2520일의 두 기간에 걸쳐 이루려고 수고했던 그 혼인은 1844년 10월 22일에 신랑이 그 혼인에 임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치고 피곤한'이라는 뜻의 레아와 결혼하셨는가, 아니면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헬과 결혼하셨는가? 레아와 라헬은 '여행하는 처녀들'의 두 부류, 곧 1844년 10월 22일 야곱과 결혼하러 가는 길에서 '지쳐 가는' 처녀와 '여행을 잘하는' 처녀를 나타낸다.

"그들 뒤에는 길의 시작 부분에 밝은 빛이 세워져 있었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은 '한밤중의 외침'이라 하였다." 이 빛은 그 길 전체를 따라 비추었고, 그들의 발을 밝혀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그들을 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면 안전했다. 그러나 곧 어떤 이들은 지쳐, 그 성이 너무 멀다고, 자신들은 이미 그곳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분의 팔에서 나온 빛이 재림의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추었으며,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다른 이들은 경솔하게 뒤에서 비추던 빛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의 빛이 꺼져 그들의 발치가 완전한 어둠 속에 놓였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길에서 벗어나 아래의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졌다." 초기 저술, 15.

1844년에 필라델피아의 밀러파 운동은 혼인에 들어갔다. 1844년 10월 22일의 혼인은 라헬과 레아로 대표되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갈라놓았다. 라헬은 1844년 10월 22일의 혼인으로 가는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한 부류를 대표하지만, 레아의 부류는 지쳤다. 그때 그들은 분리되었고, 한밤중의 외침의 시험 과정이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천사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결혼은 시작되었고 그 이후 완결되고 시험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 결혼은 1846년에 완결되었고, 셋째 천사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1849년과 1850년에 주께서는 남은 자들을 모으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펴고 계셨다. 그때 하박국의 둘째 도표가, 둘째 돌판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역사 속에 자리 잡았다. 모세가 첫째 돌판을 깨뜨린 후, 둘째 돌판이 주어졌다. 1850년 도표가 1843년 도표를 대신했고, 1850년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신부로서의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은 가데스와 1863년을 향해 계속되었다.

1856년, 두 강의 더 많은 물이 하이람 에드슨의 펜을 통해 흘러나왔다. 에드슨의 펜을 통해 전해진 '일곱 때'에 대한 빛은, 에덴동산에서 예언적 증언을 시작한 두 강으로 상징된 빛이었다. 에덴동산은 인류가 하나님의 법에 반역한 것을 상징하며, 올라이 강과 히데겔 강의 물이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다. 반역의 상징인 그 동산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사귀를 대신할 옷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양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강물들은 언약의 역사를 따라 흘러간다. 언약의 역사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생명의 언약으로 시작한다. 생명나무로 상징된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 깨졌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벌거벗고 길 잃은 그 두 사람에게 옷을 마련해 주셨을 때 새로운 생명의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 두 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권세들의 상징이 된다.

앗수르여, 너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들의 손에 든 지팡이는 내 분노다. 내가 그를
위선적인 나라를 치도록 보내고, 내 진노를 받는 백성을 향하여 그에게 명하여,
탈취하게 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리라. 이사야 10:5, 6.

그 두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 리브가의 계보와 그녀가 이삭과 맺은 언약적 결혼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두 강의 물은 각각 일곱 때로 이루어진 서로 구별되는 두
기간으로 상징된다. 그 다음, 같은 두 강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여섯 장을 흐르는데, 각
강이 세 장씩을 대표한다. 한 강은 7, 8, 9장에서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나타내고,
다른 한 강은 10, 11, 12장에서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나타낸다.

7장, 8장, 9장은 올라이 강에 관한 환상으로 제시되며, 10장, 11장, 12장에서도
그리스도는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각각 세 장으로 이루어진 두 강의 환상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물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서 있었다. 또 내가 올라이 강 양쪽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 8:15, 16.

제10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목격한 환상과 비슷하며,
다니엘의 8장 환상에서는 팔모니가 물 위에 계셨고, 12장에서도 그러하셨는데 그때는
세마포를 입고 계셨다.

가브리엘이 방문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은 더 이상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께 빛과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내 입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또 전혀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노라....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베옷을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허리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보석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이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빛깔이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묘사는 밧모섬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기록한 것과 비슷하다. 우리 주께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세상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년 2월 8일.

10장의 히데겔 환상에서 그리스도는 물 위에 계시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고, 올라이
환상에서도 그분은 물 위에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의 환상은 올라이와 히데겔의 환상과
일치하며, 그곳에서 화이트 자매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다.
그녀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지목할 때, 그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0장의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는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손을 하늘로 드시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시는 환상과 연결된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는

물과 땅 위에 계신다.

강의 "두 기슭 사이"에 있는 것은 물이고, 다니엘은 "두 기슭 사이에서 나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그 음성은 물 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 음성은 올라이 강물의 소리였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와 같았으며 눈은 불의 등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은 빛깔이었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

그러나 너는, 오 다니엘아, 이 말들을 감추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가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가 저쪽에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베옷을 입고 강 물 위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일까요?" 내가 들으니, 베옷을 입고 강 물 위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라."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흩어져 끝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마쳐질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내가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이 일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끝날까지 닫히고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겠으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 중에는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0:4-6; 12:4-10.

화이트 자매가 지칭하는 바와 같이 시날의 큰 강들은,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기 때문에 물 위에 계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환상과 둘 다 연결되어 있다. 두 환상 모두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또한 두 강은 재림교의 중심 기둥과 기초인 다니엘 8장의 '문답'에서도 제시된다. 거기서 그 두 강은 성소와 군대를 흩어지고 짓밟는 '일곱 때'의 상징이다. 두 강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라는 역할을 수행한 후, 첫째 천사의 밀러주의자 역사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윌리엄 밀러는 그의 첫 번째 예언의 보석, 곧 레위기 이십육 장의 '일곱 때'의 기간을 발견하였다. 두 강은 2520년의 두 번의 흩어짐을 나타내며, 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로 상징되는 앗수르와 바벨론의 두 사자에 의해 성취되었고, 물론 리브가의 조카들인 레아와 라헬로도 상징된다. 이삭이 마흔 살이었을 때 이루어진 리브가와와의 언약적 결혼은 창세기 2520에 기록되어 있다.

밀러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일곱 때"의 흩어짐만 제시했는데, 그것은 1844년에 2300년의 예언과 함께 성취되었다. 1856년에 "일곱 때"의 "새 포도주"가 북왕국에 대한 동일한 흩어짐이 1798년에 끝났음을 밝혔다. 윌리엄 밀러의 첫 예언적 발견으로서 유프라테스 강의 물은 첫째 천사의 역사에서 알파 교리로 등장했다. 올라이 강의 물은 셋째 천사와 함께 등장했다. 밀러의 알파 발견은 올라이 강으로 대표되는 "일곱 때"였고, 히람 에드슨의 오메가 발견은 히데겔 강으로 대표되는 "일곱 때"였다.

2520은 각 왕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되, 그 시작과 끝은 서로 46년 차이가 난다. 1798년은 끝의 때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도래를 가리킨다. 1798년은 아시리아의 사자에 의해 북왕국에 임하였던 흠어짐 2520년의 성취이다. 1844년은 남왕국에 임한 '일곱 때'의 성취이며 바벨론의 사자로 대표된다. 두 강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양 끝에서 규정하는 표지로서, 그 역사는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도착함으로 끝났는데, 그날 반표상적 대속죄일에 일곱째 나팔과 희년의 나팔이 함께 불렸다.

그때 너는 일곱째 달 열흘에 희년의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일에는 너희가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불게 하라. 레위기 25:9.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시는 사역의 상징이며, 올라이 강 환상의 2,300년으로 나타난다. 또한 희년의 나팔이 울리는 것은 깨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땅의 언약의 상징이며, 다니엘은 이를 '모세의 저주와 맹세'라고 불렀고 모세는 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다툼'이라고 불렀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떠나가서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니엘 9:11.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을 가리킨다. "맹세"로 번역된 단어는 레위기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이다. 25장에서 언약의 맹세를 어김에 대한 저주는 26장에서 제시되며, 모세는 그 저주를 "언약의 다툼"이라고 규정한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적하여 행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내 언약의 원한을 갚게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일 때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라. 레위기 26:24, 25.

주께서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을 "원수의 손"에 넘겨 "징벌"하시기 위해 앗수르의 사자의 칼을 그들 위에 가져오셨다. 46년 후인 기원전 677년에 남왕국도 모세의 저주를 겪었다. 모세의 저주는 언약의 다툼이다. 46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그 군대를 제거하고 짓밟았다. 그 46년의 기간 끝에 느부갓네살이 성소를 파괴했다. 다니엘 8장 13절에서 다니엘이 질문한 그 "군대"는 성소의 파괴로 절정에 이르는 46년의 기간 동안 원수들에게 예속되었다. 그 성소는 13절에서 짓밟히게 되어 있던 다른 대상이었다. 그 강들이 각각 1798년과 1844년에 이르렀을 때, 군대는 성전으로 모아졌는데, 군대는 몸이고 몸은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의 끝에 46년에 걸쳐 세워진 성전은 신성과 인성의 혼인 가운데 하늘 성전과 연합하게 되어 있었다. 결혼은 두 성전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은 나뉘어서는 안 된다.

티그리스 강물은 1798년에 이르렀고 유프라테스 강물은 1844년에 이르렀다. 셋째 천사가 도착하기 직전에 둘째 천사가 도착했고, 그 후 1844년 8월 12-17일 뉴햄프셔 주 엑서터에서 열린 캠프 집회에서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엑서터는 '물의 요새'를 의미하며, 그 캠프 집회에서는 매사추세츠 주 워터타운에서 온 한 무리가 세운

다른 천막에서 가짜 집회가 열렸다. 화이트 자매에 따르면, 에덴에서 비롯된 물은 '해일'처럼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퍼져 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 해일을 촉발한 지진은 사탄이 인류를 정복했을 때 에덴동산에서 일어났고, 에덴의 지진성 격변에서 시작된 파도가 밀려파 역사에서의 한밤중의 외침에까지 미쳤다. 그 해일은 14만 4천의 역사에서의 한밤중의 외침으로 밀려들어오고, 아담의 죄의 지진에서 시작된 그 파도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일요일 법의 지진에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이며, 그 물들이 합쳐져 늦은 비의 기별을 이룬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은 7장 3절에서 윗수로의 못에 서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늦은 비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 거기에서 어리석고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해 이사야가 선포한 바는 주께서 아하스에게 앗수르의 물, 곧 산헤립 왕을 보내실 것이며 그 물이 목까지 차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였은즉,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께서 그들 위에 강의 물, 곧 세차고 많은 물,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몰아오시리니, 그가 모든 물길을 넘치고 모든 제방을 넘을 것이요, 그가 유다를 지나가며 넘쳐 흐르고 지나가서 목에까지 이르리라. 그의 펼친 날개가 네 땅의 넓이를 가득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아. 이사야 8:5-8.

아하스는 주께서 '보내신' 물을 거부했으므로, 주께서는 아하스에게 앗수르의 물을 '보내셨다'. 아하스는 "르신과 레말리아의 아들"의 동맹을 "기뻐하였다". 아하스는 르신과 레말리아의 아들로 대표되는 거짓 늦은비 메시지를 "기뻐한다".

레신과 레말리아의 아들, 곧 북왕국의 왕 베가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모방한 가짜를 대표한다. 어리석고 악한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 북방의 열 지파와 시리아로 대표되는 그 동맹을 "기뻐하는데", 이는 일요일법령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불법적 결합을 예표한다. 아하스가 기뻐하는 것은, 수치와 기쁨이 늦은비 논쟁에 거론되는 이들을 다루기 위해 영감에 의해 사용되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고,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준다. 라오디게아인인 아하스는 눈먼 자이므로 거짓 물의 기별을 기뻐하며 이사야의 참된 물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다. 그는 북방 왕의 홍수로 대표되는 가짜 늦은비 기별을 신뢰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그는 실로아의 기별을 거절했다.

이사야 8장에서 실로아의 메시지는 늦은 비의 메시지이다. 실로아의 못은 신약에서 실로암 못으로 알려져 있다.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로 '보냄'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필요했다. 이사야와 아하스는 실로아의 못에 있으며, 시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대표하는 실로아의 못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신뢰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아하스는 두 가지 물, 곧 실로아의 물과 앗수르 왕의 물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다. 아하스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대표하는 동맹과 메시지를 기뻐하였고, 그리하여 그의 판단 때에 부드럽게 흐르는 물 대신 황폐의 홍수를 받았다. 그의 판단은 북방 왕이 온 세상을 홍수처럼 넘쳐흐르게 하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그것은 일요일 법령 때부터 그렇게 하며, 그때 한밤중의 외침의

홍수도 세상을 휩쓸고 있다.

아하스는 북방 열 지파와 시리아의 동맹을 기뻐하며, 따라서 교회와 국가를 결합시키는 메시지를 기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적 동맹으로 대표된다. 이사야는 빌라델비아인을, 아하스는 라오디게아인을 대표한다. 그리스도는 실로암 못에서 라오디게아인인 맹인을 고치실 때, 이사야의 증언을 자신의 증언과 연결하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려 함이라.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니,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뒤 그에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러므로 이웃들과 전에 그가 맹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와 닮았다' 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요한복음 9:1-11.

맹인과 어리석고 악한 왕 아하스는 실로암 못을 신뢰할지, 앗수르의 홍수를 신뢰할지 시험을 받는다. 그 맹인은 자신이 눈먼 것을 알지만, 아하스는 부요하여 재산이 불어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하스는 늦은 비의 못에서 어리석은 처녀이고, 그 맹인은 지혜로운 처녀다. 보냄받은 물이냐, 아니면 앗수르에서 보내진 물이냐가 시험이다.

못이란 물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며, 예언적으로 못은 시내, 강, 개울, 바다, 대양, 호수, 비와 이슬 등 그리스도의 음성을 상징하는 모든 '물'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늦은 비의 못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형성된다. 그 못은 시험의 맥락에서 늦은 비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아하스는 잔잔히 흐르는 물을 거부했지만, 그 눈먼 사람은 그 못과 관련된 메시지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일부를 '침'으로 상징하여 그것을 진흙과 결합시키셨는데, 이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과 섞어 진흙을 만드셨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는 메시지로 그 맹인의 눈을 바르셨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대표되는 메시지는 1888년의 메시지이며, 그것은 사람을 라오디게아의 상태에서 빌라델비아의 상태로 변화시키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인간의 참여를 요구한다. 그들은 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과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상태에 대한 비난의 질문을 거두시고, 그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워진 사람으로 규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세워지는 성경 예언 속의 그 예언적 사람은 기치이며, 그 기치는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간 남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기치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곳인데, 그분의 일은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것(진흙 연고로 상징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의 증거들은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기별 속의 처방을 따른 사람들이다. 그 맹인에게 주어진 처방은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다. 그가 보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를 둘러싼 상황이 그것을 이루어 주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그리스도의 사역이 뒤따랐다. 사람과 관련하여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상태에서, 혹은 거리에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박쥐처럼 눈먼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마지막 사역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분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다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행하신 바로 그 일이다. 마지막 사역이 곧 처음 사역이다. 그분은 먼저 진흙을 빚으시고, 그 진흙에 자신의 영의 생명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아담에게는 그 영이 그의 호흡이었고, 눈먼 사람에게는 물이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는 몸을 이루게 한 것이 모으라는 메시지였다. 이어 사방의 바람에 대한 메시지가 그 몸에 숨결처럼 불어넣어졌고, 그러자 그것은 강대한 군대로 일어섰다.

그 맹인이 아직 눈먼 상태였을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의 맥락 속에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시며, 그리하여 그 예시를 위한 적절한 예언적 배경을 설정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의 여러 증언의 줄기들에서 예언적 상징이다. 성경 속 '하나님의 일'의 모든 나타남은 늦은 비의 때에 성취된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의 맥락을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들에서 엘리야로 대표되는 마지막 기별의 관점에 두고 계신다.

부모와 맹인 자녀는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이기 때문이며, 그때 부모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 당면한 쟁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쟁점은 맹인 라오디게아인이 기름부음 받은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때에 부모와 자녀가 맞닥뜨리는 쟁점이며, 그때가 또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예언대로 셋째와 넷째 대에 걸쳐 집행된다. 그 맹인은 마지막 넷째 대이고, 그의 부모는 셋째 대이다. 그 기간에 엘리야 기별은 가정들을 실로암 못의 기별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어리석고 악한 왕 아하스는 그 못의 기별을 거절했으나, 그 맹인은 받아들였다. 말라기의 엘리야 기별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임할 저주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장면을 예수께서 마련하셨을 때, 그분은 그 기적의 목적을 요약하시면서 지금 일해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한 일은 낮에 이루어지며, 일의 끝은 밤으로 표현된다. 그분의 언급은 유예 기간의 종결을 가리킨다.

그분이 심판의 일을 마치시면 제사장적 의복을 벗고 보복의 옷을 입으신다. 그분이 잃어버린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분리하는 그 일을 마치실 때 구원의 사역은 끝난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된다. 그리스도의 기별은 눈먼 자에게 주는 라오디게아의 기별에 그치지 않고,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웠다는 맥락 속에 놓인 엘리야의 기별이었다. 바로 그 임박함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동기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시고, 연고를 준비해 발라 주신 다음, 그 맹인이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주셨다.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일을 맡아 할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된다는 점이다. 그가 시력을 얻게 되면 그는 눈먼 라오디게아 교인에서 빌라델비아 교인으로 변화한다. 그 두 교회의 변화의 시기는 처음에 1856년부터 1863년까지 완성되었다.

그 시기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와, 그 후에 기호로 들어 올려질 십사만 사천에 대한 최종 인침을 상징한다. 그 맹인은 라오디게아인에서 빌라델비아인으로 바뀌자마자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맹인은 십사만 사천을 가리키며, 악하고 어리석은 왕 아하스는 주님의 입에서 토해 내신 옛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 역사의 같은 시점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침으로 새 언약 백성에게 바르시거나, 옛 언약 백성을 자신의 입에서 토해 내신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사상을 계속 살펴볼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하신 분은 모든 민족을 상대로 장부를 관리하신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동안 이 장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한계에 이르면 그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때 그 장부는 닫히고, 신적 인내는 끝나며,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간구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시대를 내다보던 선지자는 그의 환상 앞에 우리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전례 없는 자비를 받아 왔다. 하늘의 가장 귀한 복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더욱 커진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멸시함과 가증스러운 배은망덕이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빠르게 마감하고 있다.

종교계에 큰 당혹과 혼란이 일어날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신이라 하는 자도 많고 주라 하는 자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어칠 것이고, 사탄은 천사의 옷을 입고 만일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에 퍼부어지는 만연한 조롱은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가 없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더욱 노골화될수록,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사이의 경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한쪽 부류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멸시가 커질수록, 다른 부류에서는 그 계명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이께서 그분의 율법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분은 그 율법을 폐하는 자들에게 폭풍과 홍수와 광풍과 지진 가운데서, 육지와 바다의 위험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그분의 백성이 자신들이 원칙에 충실함을 보여야 할 때다.

우리는 중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주께서 문 앞에 계신다. 올리브 산에서 구주께서는 이 큰 사건에 앞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러한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요한과 다른 예언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일어나게 될 무서운 장면들의 증인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집결하는 군대들과 두려움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땅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며, 바다 물결이 포효하며 격동하고, 그 거센 물결로 인해 산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열리고, 전염병과 기근과 죽음이 땅의 주민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허리케인과 폭풍우, 바다와 육지의 재난들이 빠른 속도로 연달아 들이닥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든다. 우리 주위에 점점 짙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오심을 알려 주는 징조들을, 사람들은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돌린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들을 놓아주라고 명하실 때, 어떠한 펜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그분의 보복하시는 진노의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중대한 비상사태에서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 에스겔,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 우리는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다. 세상은 통치자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가올 사건들의 진행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늘의 위엄을 지니신 분은 그분의 교회에 관한 일들뿐 아니라 민족들의 운명도 친히 그분의 손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셔서, 그분의 백성이 반대와 진노의 광풍에 맞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안일하게 기다리며 앉아 있으면서, 환난의 날에 주께서 자신의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안일한 기대 속에 머무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지금은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 사탄은 주의 백성에게 자비와 정의가 베풀어지지 못하도록 분주히 일을 꾸미고 있다. 일요일 운동은 지금 어둠 속에서 전진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쟁점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합류한 많은 이들도조차도 저류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못한다. 그 주장은 온건하고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말할 때 용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임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진정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에 맞서 가장 효과적인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으나,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중대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시련과 유혹에 맞서 이기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면 큰 믿음과 힘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며 믿는 단 하나의 영혼도 원수의 간계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 하늘은 우리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있다.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모든 반대의 영향력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과 같이 지금도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연약한 도구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우리는 수의 많음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이제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 영원을 위해 철저히 일합시다. Southern Watchman, 1906년 12월 25일.